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ecision-Making Power of the Elderly to Home Manage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宋 周 垠

교 수 : 文 淑 才

Dept. of Home Management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Joo Eun Song

Prof. : Sook Jat Moon

목 차

I. 서 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 of decision-making power of the elderly to home management and life satisfaction by applying a social behavior theory and exchange theory and to find out the device, which improve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at the home management view.

For these research task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those respondents were 273 woman elderly living with one of their married children in Seoul. It was analyzed by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ANOVA, F-test, t-test, Pearson's Corrd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Decision-making power of the elderly to home managemen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ll of the variables except for religion, job status of the elderly and education, income of the children.

2) Decision-making power of the elderly to home management ha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variables such as income of the elderly, solidarity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age of the elderly. The most influencial factor was income of the elderly.

3) Elderly life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differenced according to all of the variables except for age, job status of the elderly and education, income of the children, inmate children.

4) I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the most influencial factor was decision-making power to home manage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to home manage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ose variables for the elderly life satisfaction was 56.2%.

I. 서 론

일반적으로 농경사회에서의 노인들은 가족내의 권력자로서나, 사회의 어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으나 산업사회에서는 노인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왔다. 더우기 여자노인은 이와 같은 노인의 지위의 하락을 경험할 뿐 아니라 여성의 급속한 역할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세대간의 가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여자노인의 경우, 사망율이 낮고 평균 수명이 길며, 남자노인 보다 5~10년 가량 노화를 빨리 지각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노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때, 여자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보다 가중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된 것은 노인인구가 급증한 1970년대 이후로서, 초기에는 거시적인 측면이 증시되었으나, 점차 가정내부적인 측면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왔다(Streib, G.F.와 R. W. Beck, 1980).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만족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표면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족', '노인 개인적 요인에 의한 만족'을 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가정내의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의 제시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생활의 무대가 직업생활에서 가정생활로 변화되고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가족원으로 변화된다는 가정을 고려해 볼 때,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결정과 생활만족의 선행연

구를 기초로 하여 가정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가정관리적 시각에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많은 행동과정 중에서 자신의 취할 행동을 선택하는 정신적, 지적 활동으로서, 관리의 핵심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가족이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 가족원에게 인간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임정빈과 김윤경, 1983: 117).

현재까지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정내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역할수행 관계(Turner 등, 1965; Davis, 1976; Duglas와 Wind, 1978; 류영희 1981; 이형실 1985; 임윤정, 1988)와 권력구조 관계(Blood와 Wolfe, 1960; 이한기, 1977; Cromwell과 Cromwell, 1978; 임희규, 1979; 최영애, 1982; 김윤경, 1983; 이정우, 1987; 김성희, 1988)의 두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역할수행과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의사결정시 부부의 역할참여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가족의 권력구조와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가정내의 의사결정 정도가 부부의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와 이러한 권력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 영향받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자원이론, 교환이론, 규범적 자원이론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부간의 의사결정 이외의 다른 가족

성원간의 의사결정 또한 결코 경시될 수 없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노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결정관계는 더욱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노인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의 가정내 노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우며, '노인 부부간의 의사결정'(Pratt과 Heckert, 1988; Dorfman와 Hill, 1986), '부양자(Caregiver)와의 의사결정'(Pratt, Jones, Shin과 Walker, 1989)에 관한 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도 역시 노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는 '노인의 생활만족'과 '가정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각기 다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심층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연구결과(안홍자, 1976; 김복길, 1978; 이옥재, 1980; 김현조 외, 1988; 모선희, 1990; 오건작, 1991; 이연숙, 1990)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부모와 자녀관계에서 경제적 자원과 가정경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이 지닌 권력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상대적인 자원량에 비례한다는 상대적 자원이론(이정우와 장병옥, 1987: 179)의 가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에 비해 노부모의 경제적인 자원이 많으면, 가정내 권력으로 지칭되는 의사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반면에 자녀에 비해 노부모의 경제적인 자원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부터 기쁨,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 자신의 목적성취,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아가치를 느끼고,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Neugarten, 1961)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으로서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들 수 있으며,

따라서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연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리적 복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라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태, 즉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최혜경, 1984: 4).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이론으로는 사회활동이론과 교화이론이 있다. 사회활동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은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욕구는 지속되므로 노인들은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인 중년기의 태도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가능한 오래 광범위하게 유지될 때 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Rosow, 1973: 85)고 하며, 교화이론은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소유할 수록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즉, 교환자원은 권력과 교환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력은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으로 볼 수 있고, 이로 부터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리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3. 노인의 의사결정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지금까지 의사결정과 생활만족을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논의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이 부부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며, 인간중심적인 의사결정이 가정생활만족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임정빈, 1988). 또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측정변수로서 의사결정권을 다룬 연구(안홍자, 1976; 이옥재, 1980; 한임섭, 1987)에서는 은퇴 후 경제권이 없어진 노인들은 과거의 지배적 역할에서 의존적인 역할로 변하게 되며, 따라서 가정내의 의사결정권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심리적 우울과 불만족이 심화된다는 결과를 보인다. 이를 통하여 가정내 자원인 경제력과 의사결정권과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4. 연구문제의 설정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

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적인 변인과 가족 환경적 변인에 따라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개인적인 변인, 가족 환경적 변인, 의사결정권에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도

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1) 개인적인 변인

개인적인 변인은 노인의 연령, 학력, 결혼상태, 건강상태, 용돈액, 소득, 자산, 종교의 유무, 직업의 유무 및 지위(은퇴 이전 직업유무 및 지위), 사회활동 참여 여부 및 종류별 참여도 및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의 연령은 Howard와 Tinsley의 방법에 따라 55~64세의 노인을 연소노인, 65~69세의 노인을 중고령 노인, 70세 이상의 노인을 노령노인으로 분류하였고, 직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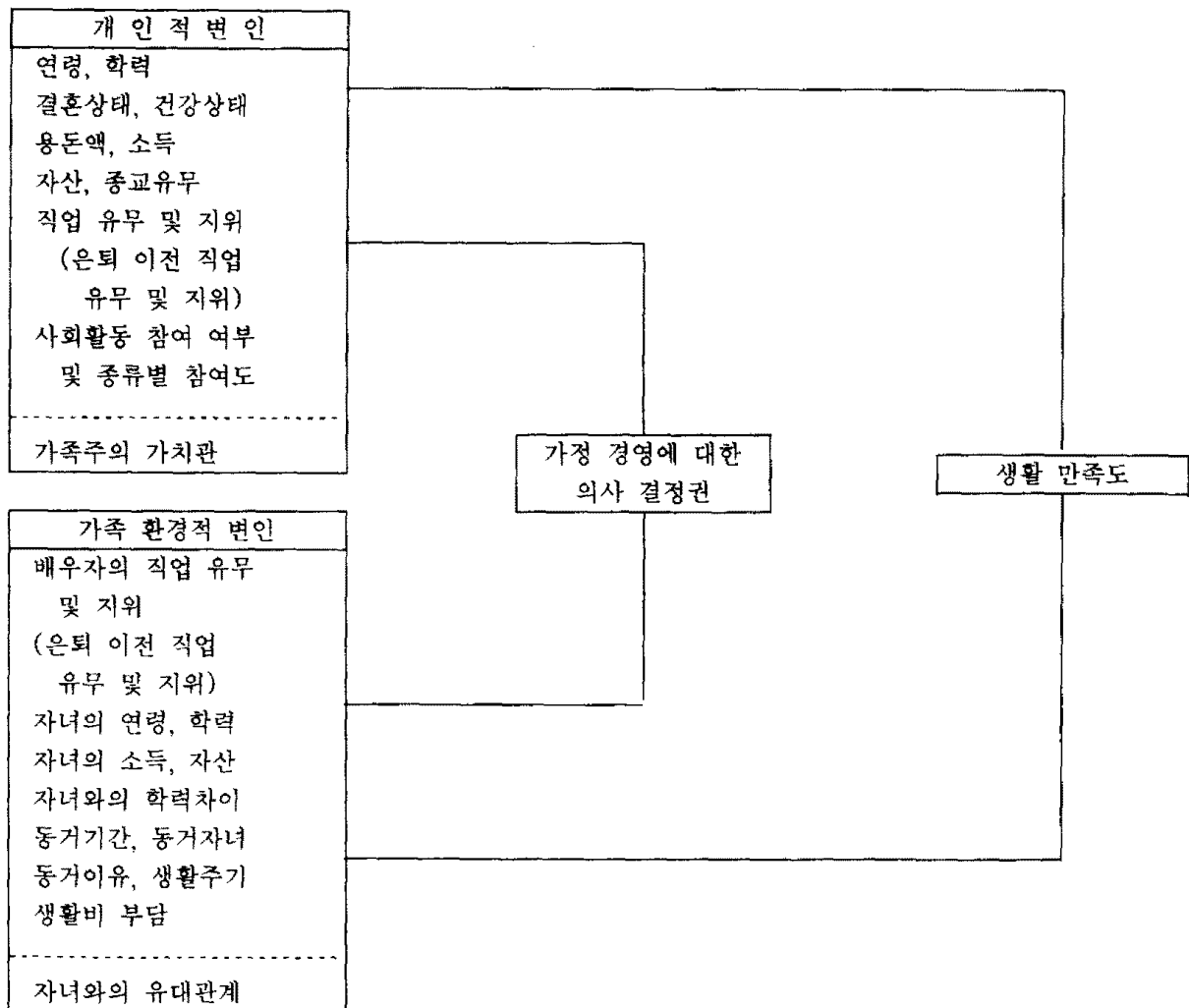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위는 홍두승의 직업별 사회경제적 지위척도를 기초로 하여 김종숙(1987)이 환산한 노인의 직업지위점수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심리적인 변인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최재석(1982)의 가족제도에 관한 가치 개념을 기초로 한 김종숙(1987)의 가족주의 가치 척도를 발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내용은 자식의 도리, 부모의 역할, 가족의 집단 의식, 남녀의 역할문제, 가족내 상하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 범주별 2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Type 척도로써 총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 분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현대적인 가치관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10이었다.

2) 가족 환경적 변인

가족 환경적 변인은 배우자의 직업 유무 및 지위(은퇴이전 직업 유무 및 지위), 자녀의 연령, 학력, 소득, 자산, 자녀와의 학력차이, 동거기간, 동거자녀, 동거이유, 생활비 부담상태와 심리적 변인인 자녀유대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생활비 부담상태는 가정내의 경제적 권력에 대한 대안적 문항으로써 자녀부담, 본인 혹은 배우자 부담, 공동부담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변인인 자녀유대관계는 최혜경(1984), 김종숙(1987), 박충선(1990)등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객관적인 유대관계와 주관적인 유대관계를 고려한 총 6개 문항을 선정하여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Type 척도로써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30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776이었다.

3)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의 소유여부에 관한 척도는 김복길(1978), 최영애(1982), 김윤경(1983), 이정우(1987), 김성희(1989), 모선희(1991)등의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였으며, 가정내 의사결정 영역을 의, 식, 주, 경제 및 경영, 자녀 및 손자녀 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항상 자녀'에서부터 '항상 본인'까지로 5개 범주를 갖는데, 이 중 '항상 자녀'와 '주로 자녀'는 자녀 중심, '본인 자녀 공동'은 공동, '항상 본인'과 '주로 본인'은 노인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25점에서 75점까지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노인 중심인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12이었다.

4)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측정은 Medley(1976)의 도구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한 김종숙(1987), 조옥희, 신효식과 박옥임(1991)등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생활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두 유형으로 구성되었는데 첫번째는 현재 생활에 대한 느낌을 묻는 8개 문항으로써 긍정은 1점, 부정은 0점의 2점 척도로 측정하여 0점에서 8점사이의 범위를 갖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는 단일문항으로서 5점 Likert Type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8점까지 분포한다. 최종적인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두 유형의 질문 응답 점수를 합한 것으로서 생활만족도의 범위는 0점에서 1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함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시의 55세 이상 여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2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결과분석 후 설문지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41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방법은 질문지법과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총 410부중 380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 273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인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PC SAS PACKAGE PROGRAM(Version 6.03)을 이용하였으며,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일원산분산분석(ANOVA)을 통한 F검증과 t검증, Scheffé's Test, Pearson 적률 상관관계분석과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자료

를 처리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여자노인의 평균 연령은 67.5세로 나타났고 76.6%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노인이 63.5%로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70.3%가 자신의 건강이 대체로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여자노인은 63.4%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자산이 있는 여자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54.6%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69.5%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95.2%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자노인의 배우자는 48%가 직업이 있으며, 자녀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나타났다. 자녀의 66.7%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평균소득은 81~140만원이 34.1%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기간은 평균 11년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모시고 살기를 원해 같이 동거하는 여자노인이 39.6%, 노인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어 동거하는 여자노인이 25.6%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내 생활비 부담은 자녀 부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77.1%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1985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한국노인의 생활실태」의 평균연령인 69세보다 다소 낮았고, 학력은 중졸이하의 학력이 75.6%로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조사의 99.2%에 비해 높았다. 또한 소득을 가진 노인이 36.6%를 차지하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조사(39.1%)의 표본보다 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결과 및 해석

1. 개인적 변인 및 가족 환경적 변인에 따른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개인적 변인과 가족 환경적 변인에 따라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하였고, 각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Scheffé's Test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 2와 같다.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은 노인의 종교 유무, 직업지위, 자녀의 학력, 소득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연령에 따른 각 집단간의 의사결정권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중심인 것으로 나타났고, Scheffé Test결과, 연소 노인집단, 중고령 노인집단과 노령 노인 집단간에 각각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소 노인의 경우, 일정의 경제력을 소유하고 사물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이 부모의 결정에 따르는 비율이 높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가정내 노인들의 의견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용돈액이 많을수록 노인 중심의 의사결정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자산, 직업이 있는 노인이 의사결정권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s Test결과, 소득과 자산, 직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 간에는 각각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자원을 많이 소유할수록 권력이 많아진다는 자원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이 선호하는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여러가지 만족도가 축적될 수 있다는 Michel(1981)의 결과처럼 가정 외부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가정내 권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업 유무와 직업지위에 따른 의사결정권 역시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권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본인의 경제적인 자원 뿐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적인 자원도 권력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필요에 의해 동거하는 노인 역시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집단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생활비 부담에 따른 의사결정권의 소유여부를 살펴보면, 노인 부부가 부담하는 경우, 많은 의사결정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heffé's Test결과, 노인 부담, 노인-자녀 부담의 세 집단 간에는 각각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로서 앞서 언급한 경제적 자원의 소유 여부에 따른 권력 획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녀유대관계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살펴보면,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권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Scheffé's Test결과, 자녀유대관계 정도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 간에는

표 1. 개인적 변인에 따른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 (N=278)

변수	집 단	가정 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		
		평균	F값/t값	Scheffé's test
노인연령	55~64세	46.87		@ @
	65~69세	39.03	F= 27.59***	@ @
	70세 이상	33.56		@ @
노인학력	무 학	36.10		@ @
	서당 및 국졸	36.81	F= 17.10***	@ @
	중 졸	37.78		@ @
	고 졸	47.52		@ @ @
결혼상태	대 졸	54.50		@ @ @
	기혼동거	47.01		
노인 건강상태	별거 및 사별	35.73	t= 7.34***	
	매우 건강	42.25		@
노인용돈	건강한 편	39.94	F= 3.59*	@
	건강하지 못함	37.14		@
노인소득	5만원 미만	36.50		@
	5만원~10만원 미만	40.37	F= 12.57***	@
	10만원 이상	46.62		@ @
노인자산	유	51.28		
	무	32.97	t= -14.04***	
종교유무	유	46.11		
	무	32.97	t= -10.39***	
노인직업 지 위	유	43.50		
	무	38.95	t= -1.42	
사회활동 참여도	유	58.23		
	무	38.95	t= -8.48***	
가족주의 가치관	유직	39.67		
	부직	39.23	t= 0.28	
	유	44.15		
사회활동 참여도	무	35.89	t= -5.73***	
	하집단(7~15)	41.96		@
	중집단(16~20)	47.46	F= 6.45**	@
가족주의 가치관	상집단(21~26)	54.46		@
	전통주의(12~20)	38.95		
가족주의 가치관	현대주의(31~39)	48.12	t= -3.20**	

*P<.05, **P<.01, ***P<.001

표 2.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른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

(N=273)

변수	집 단	가정 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		
		평균	F값/t값	Scheffe's test
배우자직업	유 무	52.85 41.30	F= - 4.90 ***	
	배우자직업 지 위	근로노동	30.50	
농업		38.31	F= 5.63 ***	@
상업		46.79		
사무직		48.59		
관리직		49.92		
자녀연령	전문직	55.73		@ @
	25~33세	51.13		@ @ @ @
	34~41세	40.53	F= 29.05 ***	@ @ @ @
	42~49세	36.18		@ @
자녀학력	50세 이상	32.02		@ @
	고졸 이하	39.37		
자녀소득	대학원 이상	40.86	F= 1.35	
	80만원이하	37.28		
	81~140만원	43.02		
	141~200만원	39.71	F= 2.15	
자녀자산	201만원 이상	37.80		
	1,000만원 이하	38.76		@ @ @
	1,001~ 5,000만원	46.55	F= - 9.43 ***	@ @ @
	5,001~10,000만원	43.75		@ @ @
	10,001~30,000만원	58.85		@ @ @
노인과자녀의 학력차이	30,001~80,000만원	34.85		@ @ @
	80,001만원 이상	33.03		@ @ @
	3년이하	37.58		@ @ @
	4~ 8년	46.86	F= 11.70 ***	@ @ @
동거기간	9~12년	42.18		@ @ @
	15년 이상	36.17		@ @ @
	2년 이하	34.28		@ @ @
	3~10년	48.58	F= -19.28 ***	@ @ @
동거자녀	11~20년	40.51		@ @ @
	21년 이상	36.36		@ @ @
	장남 부부	32.21		@ @ @
동거이유	장남외 자녀 부부	38.57	t= - 2.23 *	
	부모의 필요	42.23		
가족생활 주기	자녀의 필요	35.77	t= - 5.08 ***	@ @ @
	형성기	43.11		@ @ @
	자녀 출산 및 양육기	47.71	F= -18.37 ***	@ @ @
	자녀 교육기	42.19		@ @ @
생활비부담	자녀 성년 및 결혼기	36.97		@ @ @
	노년기	35.37		@ @ @
	자녀 부부	31.10		@ @ @
자녀유대 관계	노인 자녀 공동	35.90	F= 68.70 ***	@ @ @
	노인 부부	52.00		@ @ @
	하집단(8~14)	54.52		@ @ @
	중집단(15~22)	30.09	F= -35.94 ***	@ @ @
	상집단(23~30)	37.62		@ @ @
		47.64		@ @ @

*P<.05, **P<.01, ***P<.001

각각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여자 노인들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결정권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과 ANOVA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제외시켰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 변인인 노인의 연령, 자녀의 연령, 동거기간 중에서 VIF값을 비교하여 노인의 연령을 선택하였다. 또한 노인의 소득, 자산, 용돈액, 직업 유무, 생활비 부담 중에서는 노인의 소득을, 그리고 노인의 학력, 자녀의 학력, 자녀와의 학력차이 중에서 노인의 학력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킴에 있어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을 0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을 1점, 노인의 소득은 없으면 0점, 있으면 1점, 사회활동은 참여하면 1점, 참여하지 않으면 0점, 동거이유는 부모의 필요이며 0점, 자녀의 필요이면

1점, 동거자녀는 장남 부부이면 0점, 그의 자녀부부이면 1점으로 각각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였다. 또한 회귀모형 선형성과 동일분산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산포도(Scatter Plot)와 Normal Probability Plot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기본가정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제 변인들이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의사결정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연령($\beta = -.178$), 노인의 소득유무($\beta = .452$), 자녀유대관계($\beta = .230$)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소득유무($\beta = .452$), 자녀유대관계($\beta = .230$), 노인의 연령($\beta = -.178$)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컸다. 제변인들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설명력은 57.8%였다. 즉 소득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의사결정권은 노인 중심이었다. 이는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경제적인 자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인 자원이 많을수록 권력이 많아진다는 자원이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 재산소득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자립도가 높을수록, 가족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인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입섭(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3. 제 변인들의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에 관한 회귀분석표

설명변수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	
	B	β
노인의 연령	-.327	-.178**
노인의 학력	.209	.079
δ결혼 상태	.797	.031
δ노인의 소득유무	11.818	.452***
δ사회활동 유무	1.603	.064
가족주의 가치관	.066	.029
자녀의 자산	-.002	-.060
δ동거 이유	1.155	.046
δ동거 자녀	.541	.021
자녀 유대관계	.647	.230***
Constant	40.330	
R ²	.578	
F	32.820***	

* $P < .05$, ** $P < .01$, *** $P < .001$

δ : Dummy 처리 변수

3. 개인적 변인 및 가족 환경적 변인, 의사결정권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표 4,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인의 연령, 직업지위, 자녀의 학력, 소득, 동거자녀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우자 유무의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보였는데, Scheffé's Test결과, 건강상태 정도에 따른 세 집단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 심리적인 행복감 및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김태현(1981), 김명자(1982), 김종숙(1987), 박충선(1990)의 연구결과와 같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생활만족을 좌우한다는 McClelland(1982), Quinn(1983), 김수연(1987), 김종숙(1987), 박충

선(1990), 지연경(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소득, 자산, 직업의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최혜경(1984), 김수연(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경제적 자립을 하고 있을수록,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표 4. 개인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N=273)

변수	집 단	노인의 생활만족도		
		평균	F값/t값	Scheffe's test
노인연령	55~64세	8.86		
	65~69세	8.30	F= 0.93	
	70세 이상	8.17		
노인학력	무 학	8.25		@
	서당 및 국졸	7.61	F= 8.86	@ @
	중 졸	7.59		@ @
	고 졸	10.53		@ @
결혼상태	대 졸	11.22		@ @ @
	기혼동거 별거 및 사별	9.76 7.58	t= 4.93	
노인건강 상 태	매우 건강	9.55		@ @
	건강한 편 건강하지 못함	8.24 7.47	F= 8.27	@
노인용돈	5만원 미만	7.60		@
	5만원~10만원 미만	8.86	F= 6.76	@
	10만원 이상	9.48		@ @
노인소득	유	10.24		
	무	7.36	t= - 7.54	
노인자산	유	9.69		
	무	7.04	t= - 6.84	
종교유무	유	8.78		
	무	7.63	t= - 2.41	
노인직업	유	12.58		
	무	8.22	t= - 9.81	
노인직업 지 위	유직	8.58		
	무직	8.21	t= - 0.88	
사회활동	유	9.36		
	무	7.57	t= - 4.40	
사회활동 참여도	하집단(7~15)	9.13		
	중집단(16~20)	9.50	F= 2.27	
	상집단(21~26)	11.46		
가족주의 가치관	전통주의(12~20)	8.21		
	현대주의(31~39)	10.54	t= - 4.42	

*P<.05, **P<.01, ***P<.001

표 5. 가족 환경적 변인 및 의사결정권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N=273)

변수	집 단	노인의 생활만족도		
		평균	F값/t값	Scheffe's test
배우자직업	유 부	11.25 8.07	t = - 5.35 ^{***}	
	근로노동	6.25		
배우자직업 지 위	농 업	7.44	F = 4.11 ^{**}	@
	상 업	9.58		
	사 무 직	10.17		
	관 리 직	8.92		
자녀연령	전문직	11.58	F = 5.09 ^{**}	@
	25~33세	10.00		@ @
	34~41세	8.37		
	42~49세	7.77		@
자녀학력	50세 이상	7.98	F = 0.85	@
	고 졸 이 하	8.04		
자녀소득	대 학 원 이 상	8.62	F = 0.47	
	80만원이하	8.23		
	81~140만원	8.31		
	141~200만원	8.37		
자녀자산	201만원 이상	8.98	F = 3.16 ^{**}	@
	1,000만원 이하	9.75		
	1,001~ 5,000만원	8.71		
	5,001~10,000만원	8.30		@
	10,001~30,000만원	7.34		
노인과자녀의 학력차이	30,001~80,000만원	8.14	F = 3.27 [*]	
	80,001만원 이상	8.17		
	3년이하	9.26		
동거기간	4~ 8년	8.89	F = - 3.91 ^{**}	@
	9~12년	7.63		
	15년 이상	8.38		
	2년 이하	9.54		
동거자녀	3~10년	8.45	t = - 1.20	
	11~20년	8.21		@
	21년 이상	7.16		
동거이유	장남 부부	8.24	t = - 3.63 ^{***}	
	장남외 자녀 부부	8.77		
가족생활주기	부모의 필요	7.59	F = 2.56 [*]	
	자녀의 필요	9.09		
	형성기	9.38		
	자녀 출산 및 양육기	8.38		
생활비부담	자녀 교육기	8.32	F = 26.99 ^{***}	@ @ @
	자녀 성년 및 결혼기	7.66		@ @ @
	노년기	7.86		@ @ @
	자녀 부부	7.68		@ @ @
	노인 자녀 공동	11.39		@ @ @
자녀유대관계	노인 부부	10.59	F = - 64.58 ^{***}	@ @ @
	하집단(8~14)	4.74		@ @ @
	중집단(15~22)	7.76		@ @ @
의사결정권	상집단(23~30)	11.00	F = 57.24 ^{***}	@ @ @
	자녀중심(25~41)	6.99		@ @ @
	공 동(42~58)	10.03		@ @ @
	노인중심(59~75)	12.32		@ @

*P<.05, **P<.01, ***P<.001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한임섭(1987)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인은 생활만족도는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Chapman과 Beulet(1983), 최혜경(1984), 서병숙(1988), 김선희(1988)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증진 시킴으로써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한 사회활동이론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가 직업이 있고,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직업, 배우자의 직업지위, 자녀의 자산이 경제적인 자원으로 작용하여, 노인의 상대적인 권력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비 부담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노인-자녀 공동일 경우 가장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으며, Scheffé's Test결과, 노인-자녀 공동 부담의 집단과 노인 부부 부담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녀 부부 부담과 노인-자녀 공동 부담, 자녀 부부 부담과 노인 부부 부담 집단간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자원의 소유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유대관계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유대관계와 생활만족도간의 정적인 관계를 설명한 최혜경(1984), 김종숙(1987), 한임섭(1987), 서병숙(1988), 박충선(1990), 조병은(1990), 강주령과 김명자(1991)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Scheffé's Test결과, 자녀유대관계 정도에 따른 세 집단간에는 각각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로써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사회관계와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며,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측면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의사결정권이 노인중심일수록 높은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보였고, Scheffé's Test결과, 세 집단간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의 태도나 행동의 유지에 따라 생활의 만족을 느낀다는 사회활동이론과 권력과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소유할수록 생활의

만족을 느낀다는 교환이론의 전체에 근거하여 가족내의 권위, 지위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생활만족의 요인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의 가정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여자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종적인 변인의 선정은 앞절의 분석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제 변인들의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노인의 건강상태($\beta=.032$), 자녀와의 학력차이($\beta=-.018$)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하였고 의사결정권($\beta=.370$), 자녀유대관계($\beta=.201$), 동거기간($\beta=.185$), 배우자의 직업 유무($\beta=.173$), 결혼상태($\beta=-.173$), 동거이유($\beta=.157$), 사회활동 유무($\beta=.171$)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컸으며 제변인들의 설명력은 56.2%였다. 즉,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 건강할수록,

표 6. 제 변인들의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표

설명변수	노인의 생활만족도	
	B	β
δ 결혼 상태	-4.177	-.173*
노인의 건강상태	.135	.032***
δ 사회활동 유무	1.168	.171*
δ 배우자의 직업 유무	1.168	.173*
자녀와의 학력 차이	-.014	-.018
동거 기간	.078	.185*
δ 동거 이유	1.166	.157*
자녀 유대 관계	.163	.201*
의사 결정권	.095	.370***
Constant	-1.141	
R ²	.562	
F	12.832***	

*P<.05, **P<.01, ***P<.001

δ : Dummy 처리 변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 동거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필요에 의해 동거하는 노인,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 중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우 생활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 건강할수록, 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최혜경(1984), 김종숙(1987), 한임섭(1987)의 연구결과와 같으며, 의사결정권이 높을 때 생활만족도가 증가한다는 한임섭(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한 개인의 변인, 가족 환경적 변인, 의사결정권 중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가족 환경적 변인 중 자녀유대관계가 개인적 변인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개인적 변인과 가족 환경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으며, 건강이 좋을수록,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노인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노인의 연령, 소득, 자녀유대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유대관계가 좋을수록 노인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노인의 소득이었으며, 다음은 자녀유대관계, 노인의 연령 순이었다.

셋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개인적 변인과 가족 환경적 변인, 의사결정권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노인중심의 의사결정인 경우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노인 생활만족의 요인인 개인적 변인, 가족 환경적 변인과 더불어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 중심으로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행사되며, 자녀유대관계가 좋을수록, 건강할수록, 동거기간이 길수록,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자녀의 필요에 의해 동거하며,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노인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노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일종의 권력으로 작용하여 가정경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측정할 의사결정영역의 각 항목별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해석에서는 의사결정의 하위영역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환자원을 많이 소유할수록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가정한 교환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교환자원은 권력과 교환되는 자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권력은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는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이 생활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기존의 각 변인과 생활만족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생활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관리적 차원에서 노인이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의사결정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함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은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자녀에게도 현대 생활양식에 맞는 자녀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의 변화에 대한 교육의 실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노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의사결정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이를 통한 두세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학습은 노인의 생활만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적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이론과 교환이론의 전제에 근거하여 생활만족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으나, 이 두가지 이론만으로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생활만족도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생활만족도를 접목시켜 연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의 수정과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측정하는 척도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 자신이 보고한 가정경영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을 조사하였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거나 낮은 자신의 지위를 과장되게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노인 세대와 자녀 세대를 모두 포함시키는 설문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네째, 본 연구는 노인의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초기적 연구로서 가정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자노인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좀 더 큰 표본을 사용한 남녀별 노인의 의사결정권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혹은 도시와 농촌노인의 의사결정권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강주령·김명자(1991). 가족관계에 따른 노년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185-197.
- 2) 김복길(1978). 가정생활에 관한 의사결정의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성대 논문집*, 69-94.
- 3) 김윤경(1983).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종숙(1987). 한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현조·박재홍·김석훈·최대환·지승중(1988). 경남지역 노년층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 6,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 7) 모선희(1991). 가족내에서 노인의 의사결정권. *한국노년학* 11(1), 50-60.
- 8) 박충선(1990). 대구, 경북지역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족 생활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연구* 5, 5-20.
- 9)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오건작(1991). 도시노인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연숙(1991). 한국의 주거문화 모델 개발보급 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편*.
- 12) 이옥재(1980). 한국도시노인에 관한 일 연구-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이정우·장병옥(1987).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77-189.
- 14)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임희규(1979). 가정생활에서의 주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조병은(1990). 부모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17) 최혜경(1984).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강주령·김명자(1991). 가족관계에 따른 노년여

- 18)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9) 한입섭(198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경제활동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Bengtson, V.L. & N.E. Cutler.(1976).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 Perspectives on Age Groups and Social Change.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 By R.M. Binstock and E. Shanas(Hillsdale, N.J. Van Nostrand Reinhold Co).
- 21) Clara C. Pratt, Laura L. Jones, Hwa-Yong Shin and Alex J. Walker.(1989). Autonomy and Decision Making Between Single Older Women and Their Caregiving Daughters. *The Gerontologist* 29, 792-797.
- 22) Cromwell V.L. & Ronald, E. Cromwell.(1978). Perceived Dominance in Decision-M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among Anglo, Black and Chicano Coupl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2, 749-759.
- 23) Davis Harry L.(1976). Decision Making Within the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34-41.
- 24) Deacon & Firebaugh.(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2nd Ed. Allyn and Bacon, Inc.
- 25) Duglas, Susan P & Yoram Wind.(1978). Examining Family Roles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35-47.
- 26) Haward, E.A. & Tinsley.(1985). A System of Classifying Leisure Activities in terms of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articipation reported by older person. *Journal of Gerontology* 40, 172-178.
- 27) I. Rosow.(1973). The sociological Context of the Aging Self. *The Gerontologist* 13, 82-87.
- 28) John B. Morganti, Milton F. Nhrke, Irene M. Hulicka and Jerry F. Cataldo.(1988). Life-span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locus of contro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0, 45-56.
- 29) Kalish, R.Q.(1975). *Late Adulthood :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 Cole Publishing Co.
- 30) Karen Seccombe & Masako Inshii-Kuntz.(1991). Perceptions of Problems Associated with Aging : Comparisons Among Four Older Age Cohort. *The Gerontologist* 31, 527-533.
- 31) Kyriakos S. Markides, Jeffrey S. Levin and Laura A. Ray.(1987). Religion, Aging, and Life Satisfaction : An Eight-year,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The Gerontologist* 27, 660-665.
- 32) Lorraine T. Dorfman & D. Alex Heckert.(1988). Egalitarianism in Retired Rural Couples : Household Tasks, Decision Making, and Leisure Activities. *Family Relations* 37, 73-78.
- 33) Lorraine T. Dorfman & Elizabeth A. Hill.(1982). Reaction of housewives to the retirement of their husbands. *Family Relations* 31, 195-200.
- 34) _____.(1986). Rural Housewives and Retirement : Joint Decision-Making Matters. *Family Relations* 35, 507-514.
- 35) Marjorie W. Steinkamp & John R. Kelly.(1987). Social Integration,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 Activity Theory Revisited.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5, 293-307.
- 36) Medley, M.L.(1975).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 448-454.
- 37) Quin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 38) Rice, A.M. & S.M. Tucker.(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39) Streib, G.F. & R.W. Beck.(1980). Older Families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205-224.